

30대 유권자, 대선 투표만 4번째...‘냉소·기대’ 교차

SOCIETY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대통령 2명 탄핵 등 정치 격변 목적...임기 완주 1명뿐 ‘광장 정치’ 구심점 역할 톡톡...“아픈 역사 반복 안돼”

“탄핵 된 대통령만 2명. 오는 6월3일 선거까지 4번째 대선이네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0대 초반(1989~1993년생) 유권자들은 변화무쌍한 정치 상황에 대해 피로와 냉소를 보이면서도 민주주의 회복과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총 3번 대선을 치렀고 2명의 대통령

이 탄핵되면서 4번째 선거를 앞두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지난해 겨울과 올해 봄, 광장의 구심점이 된 30대 초반 청년 유권자들은 오는 6월 생애 4번째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다.

이들이 유권자로 투표에 참여해 3명의 대통령 당선을 봤지만, 이들 중 5년의 임기를 완주한 대통령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번 선거에서 4번째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첫 투표에서 최초의 부녀 대통령을 목격했지만, 이후 탄핵으로 조기 대선을 치렀고 현재 대통령의 탄핵에 이르기까지 2000년대 이후 급작한 정치 격변을 직접 겪은 세대로 남게 됐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정치적 변화를 체험해 온 이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을 드러냈다.

김선우씨(33)는 “2013년 군 복무 시절

대통령 선거를 처음 했는데 벌써 4번째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무엇보다 이 중 대통령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람이 1명이라는 점도 새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 내란 등 부모님 세대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직접 겪고, 국회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회의감도 들고 피곤하다”고 덧붙였다.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서모씨(34)는 “의도치 않게 4번이라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하게 됐다. 다시는 이 같은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후보자의 당을

떠나 국민을 위해 일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만한 후보를 뽑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도 선거는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생각하기에 행정을 잘 알고, 어지러운 형국에서 중심을 잘 잡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됐던 21번의 대선 중 유일한 6월 대선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기존과 다르게 화요일에 진행되다 보니 사전투표일도 목요일과 금요일(5월 29~30일)인 평일에 치러진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5:49 달출 03:35
예보 19:12 달진 15:07



광주	☀	12~22
목포	☀	11~17
여수	☀	13~21
순천	☀	12~24
구례	☀	11~23
광주	☀	10~20
임도	☀	11~21
흑산도	☀	10~16
고흥	☀	11~22
진도	☀	11~18

목포	밀물(고)	11:14 / 23:40
	썰물(저)	04:15 / 17:02
여수	밀물(고)	06:35 / 18:50
	썰물(저)	12:45 / --:--

전남경찰, 전국 최초 ‘수색견센터’ 건립

지역 특성상 실종자 발생 가능성 높아

전국 최초로 전남지역에 수색견센터가 문을 열어 눈길을 끈다.

2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실종자 수색 및 재난 대응을 위해 나주시 봉황면 부지에 전국 최초로 전남수색견센터를 개소했다.

전남지역은 넓은 산림지와 해안선을 따라 실종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특히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외딴 마을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하는 만큼 자체 구조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과학수사 수색견출동 건수 총 378건 중 전남이 12.9%(49건)를 차지하는 등 출동 건수가 가장 높다.

또 수색견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화순과 구례에서 미귀가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힘을 보탰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에도 치매 노인, 실종자 발견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에 효율적인 수색을 통한 구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수색견센터 설립 계



회를 세우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1순위로 선정됐다.

전남수색견센터 설립은 전국 최초로, 경찰과 전남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이뤄진 우수사례로 꼽힌다.

약 1년 6개월 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수색견센터를 완공, 기존 수색견 2두에서 3두로 증견하고 자체 견사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수색견의 정기 훈련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합동 훈련을 병행해 실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 시스템을 갖출 방침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장예예술인 작품전시회’ 23일 광주 서구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는 ‘장예예술인 작품전시회’를 찾은 시민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월 2일 임시공휴일 미지정...시민 반응 ‘온도차’

정부, 6월 대선·학사일정 지연·돌봄 공백 고려한 결정 직장인 “재충전 아쉬워” vs 자영업자 “소비 분산 다행”

정부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대 6일간의 황금연휴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은 실망감을, 자영업자들은 소비 분산 우려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두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날짜를 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3~4일 주말, 5일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6일 대체공휴일로 이어진다.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면 최대 6일의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쉬움을 토

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긴 연휴를 이용해 재충전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직장인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실제 5월 1~4일 가족여행을 계획했던 40대 직장인 김모씨는 여행 일정을 미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씨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에 가족들과 여행을 계획했는데 아쉽다. 아이들의 기대가 커서 일정을 바꾸기보다는 연차를 사용할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계속된 경기 침체와 장기간 연휴에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

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찍으며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내국인 출국자는 297만5191명으로, 전년 동기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다.

자영업자 A씨는 “5월 달력을 보는데 그저 답답한 마음 뿐이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임시공휴일 소식까지 겹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휴일에도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고려하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6월 3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이미 공휴일을 지정해 연이은 공휴일 지정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학사일정 지연 등에 따른 교육계의 애로사항과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편 등도 고려한 결정으로 예상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사고

만년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돼.

23일 광주 서부경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구속한 20대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24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추돌한 뒤 도주해.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차량 범퍼가 일부가 파손돼.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 운전대를 잡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발부받아.

윤용성 기자 yo1404@

바로연

바른 만남 바른 결혼

초혼·재혼 무료상담 1644-5432 / 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토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